**세계화시대의 역사보기**



**2016722074**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영태**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당시의 한반도의 분단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 하에 놓여있던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후의 통일된 한반도 한민족의 번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두 국가인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고심을 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 국가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가 상대진영에 속하지 않도록 여러 신경전을 펼치게 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누는 38선을 긋게 된다. 분단의 출발점이었던 38선의 확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영토분단이 이루어지고 또 남과 북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상호간의 이념이 대립되게 되었다. 이는 각각 남북정권의 수립으로 체제의 분단이 이루어졌고 결국 북한의 공격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625전쟁 이후에는 38선이 휴전선이 되어 지금까지 남과 북을 나누는 분단 선이 되어 오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38선을 그어 둘로 나누게 된 것은 결국 미국과 소련 각각 자국의 국가이익 충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늘리면서 타국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2차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열기가 다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태는 여전했고 이는 종전단계에서 38선 분할 점령을 확정 짓게 된다.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단독지배가 불가능할 것 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가 다른 진영의 세력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정책을 추진한다. 강대국들의 이익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게 되자 결국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택해서 세력권을 양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1945년의 분할점령부터 휴전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중심에는 강대국들의 세력전이 있었다. 이러한 분단체제의 형성에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무제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양방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났고, 서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 하에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예견된 실패였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어지럽고 혼란한 세계의 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국과 소련의 협력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양국의 균열이 결국 한반도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은 필연적이었다 보고 당시 국내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분단을 피하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적인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과 북에서 양측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구조를 계속 이어가려 했다. 이러한 점에서 최초에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외부의 강대국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분단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은 내부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내적으로의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고 서로 단결하여 분단을 막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에는 40년 가까이 일제의 지배하에 놓여있어 자치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단의 원인에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이익다툼으로 인한 38선의 확정, 그리고 양국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정부를 막는 외력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대내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우리의 자치 능력을 생각해보면 강대국의 외력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한다.